

영혼돌봄의 성경적 체계 구축을 위한 연구: 청교도 문헌연구를 통한 기독교상담적 원리 고찰

권혜령*

국문초록

기독교상담은 성경적 인간관을 기초로 삶의 문제들로 분투하는 사람들을 돕기 위한 방편으로서, 기능의 개선만을 목적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돌봄'을 위한 활동이다. 따라서 기독교상담은 영혼돌봄에 충실하게 기여할 수 있는 보다 통전적인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기독교 역사 속 연속성 측면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그 중에서도 독특한 위치를 차지하는 청교도들의 영혼돌봄의 자원을 통해 도출할 수 있는 내용을 확인하고자 한다. 연구방법으로는 먼저 기독교상담이 영혼돌봄 전통과 재연결되는데 있어 청교도 자원활용의 필요성과 의의를 확인한다. 다음으로 청교도 문헌연구를 통해 하나님, 인간, 사탄의 세 주체를 중심으로 원인을 파악하고 치유접근을 시도했다는 데 세속학문과 차별됨을 알 수 있었다. 청교도 영혼돌봄의 특징들로 그리스도 중심성, 통전성, 돌봄에 있어서의 지혜와 사랑의 측면들을 확인하고 이를 토대로 성경적 인간관에 근거한 기독교상담만의 원인 및 진단 체계 구축, 치유의 원리 회복을 위해 그리스도 중심성의 회복, 마음지키기에 대한 연구, 가정 중심의 돌봄의 적용을 포괄하는 기독교상담과정 모델 개발을 제안한다. 마지막으로, 본 논문이 영혼돌봄에 초점을 맞춘 성경적 체계 구축의 기초작업을 위한 청교도 문헌연구로서의 의의를 가짐을 밝힌다.

주제어: 기독교상담, 영혼돌봄, 통전성, 청교도 자원, 성경적 체계구축

• 논문 투고일: 2019년 3월 29일

• 논문 수정일: 2019년 5월 3일

• 게재 확정일: 2019년 5월 6일

* 열린교회상담센터 연구원

I. 여는 글

상담의 주제가 되는 문제들은 심리적, 신체적, 영적 차원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나타나는 것으로 영적인 차원은 어느 한 부분만을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아우른다는 데 그 중요성이 있다. 흠에서 나서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living soul; KJV)' 이 된 인간은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 전체로 반응하는 존재이며 심리적, 신체적, 영적인 영역의 구분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한 존재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상적으로 이러한 구분을 하고 있는데 이는 그 중에서도 중점적으로 기능하는 한 측면을 부각시키거나 이해를 돕기 위한 편의상의 구분이 필요하기 때문일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구분에 의해 도리어 제한을 받아 전체를 포괄하지 못하고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전체론적 접근이 필요한데, 인간을 이해하고 돕는 데 있어 인간 존재의 핵심인 영혼에 대한 관점을 견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신 6:5)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마 22:37)와 같은 말씀들에서 ‘마음’, ‘목숨’, ‘뜻’, ‘힘’ 이 인간의 전인격을 포괄하는 표현이라고 볼 때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핵심은 전 존재와 인격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도하신 삶의 모습에서부터 멀어져 혼란과 어려움에 빠진 사람들을 돕는 것은 단지 심리적, 신체적 기능의 회복을 돕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돌보는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상담을 통해 사람을 돕는 데 있어 전체론적 접근이란 영혼에 대한 올바른 관점과 이해를 바탕으로 하는 돌봄이라고 할 수 있겠다. 바

로 여기에 기독교상담의 정체성과 독특성이 있다(안경승, 2016).

오늘날 기독교상담은 신학과 심리학, 상담과 심리치료, 교회 안의 영혼돌봄과 교회 밖의 전문가의 직업 행위 등이 서로 교차하면서 기독교상담의 정의에서부터 상담이론과 방법론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한 형태와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다양성은 수용해야 할 삶의 한 측면이기도 하지만 때로 모호함과 혼란을 초래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근거한 영혼돌봄의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들을 해오고 있다. 본 논고에서는 그 중에서도 특히 기독교 역사 속 영혼돌봄을 위한 풍부한 보고로 여겨지는 청교도들의 유산에 주목하여 청교도 영혼돌봄의 특징을 중심으로 기독교상담적 적용을 위한 방안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청교도들의 목회 실천은 신학적, 교리적인 혼란뿐 아니라 교회 정치 제도의 혼란과 갈등 속에 성경적 교회공동체의 모습을 위해 투쟁하면서 동시에 반율법주의와 알미니안 주의의 왜곡에 대응해야 했던 시대적 상황 속에서 영혼들을 돌보기 위한 신학적, 실천적 고민 속에서 도출된 것이었다. 즉, 당시 시대와 문화의 요구에 반응하기 위한 영혼돌봄의 실천을 위한 노력들이었던 것이다(서창원, 2013; 원종천, 2015). 그들이 남긴 방대한 저술들은 오늘날 상황에 적용하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자료들로 가득하다. 그러나 인간의 마음의 문제들을 다루는 역할을 현대에 와서 심리학 및 정신의학에 상당 부분 내어준 역사적 상황 속에서 그 자원들이 전수되지 못하고 단절되었고 이러한 불연속성에 대한 문제의식에 기초하여 청교도 영혼돌봄 자원에 주목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는데, 이는 기독교 역사 속 청교도들의 특별한 위치와 역할, 그들의 실천을 통해 기독교상담을 보완하고 구축해 가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본 논고에서는 청교도들의 저술들을 통해 살펴본 영혼돌봄 자원들의 중요한 특징들을 살펴보고 이러한 특징들이 기독교상담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지에 대해 고찰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역사적 정

황들을 살펴보고 청교도 자원 활용의 의의를 확인한다. 청교도 경건주의 및 이와 관련된 영혼돌봄의 특징들을 개념화하되, 특별히 이상심리 및 정신건강문제와 관련된 세속학문의 접근과의 차별점을 원인론과 진단, 치유방안의 측면에서 살펴보아 중요한 특징들을 확인하고, 이러한 고찰을 바탕으로 앞으로의 연구방향과 과제들을 생각해보고자 한다.

II. 펴는 글

1. 청교도 자원 활용의 필요성과 의의

기독교상담에서 신앙자원 활용의 필요성과 관련한 논란이 없지는 않으나, 본 논고에서는 그 전제 자체에 동의한다는 가정하에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그러나 신앙자원 활용에 관해 동의한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 및 방법과 상담과정에서의 적용에 관해서는 입장이 더욱 다양해짐을 알 수 있다(McMinn & Phillips, 2001). 이러한 다양성은 기독교상담에 있어서 성경적 원리에 부합하는, 인간 전체를 충분히 다루는 하나의 통일되고 포괄적인 모델이 구축되는데 큰 걸림돌이 되는 듯하다. 이러한 문제의식과 관련하여 기독교 역사 속 자원들에 주목하고 그중에서도 특히 청교도 영혼돌봄의 자원 활용의 필요성과 유용성이 제기되어 왔다. 현대에 와서 정신분석을 위시한 다양한 심리치료 이론들과 임상실제들이 목회 실천에 영향을 미치고 받아 들여져 온 결과 과거 목회 전통에 대한 망각과 축소가 이루어졌다는 주장들이 있다. 현대 목회가 역사적, 신학적 측면보다는 개인적, 실용적 측면에 더욱 강조점이 있었기에 이로 인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전통적 목회 돌봄의 사례들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안경승, 2015; Oden, 1984). Cherry(2001: 126-129)

는 교회 내 임상목회교육(CPE)이 제공된 이후 신학 교육 또한 “심리학화” 되었다고 지적하며 어거스틴의 경우처럼 “신학적 심리학” 정립을 위한 “신학적 정체성”을 제공하는 신학적, 교리적 자원들을 통해 신자들의 영적인 필요를 채울 것을 강조한다. 신학과 영혼돌봄의 실천이 분리되었을 뿐 아니라 조직신학에서 이러한 문제들이 등한시되었음에 주의하고 청교도들의 기여와 중요성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것이다. Johnson(2012: 65-97)은 청교도들이 성경을 “기준을 세우는 교리서 뿐 아니라 삶의 표준적인 경험서”로서 읽었으며, 그들이 남긴 “위대한 문헌적 보고”는 주로 영적 전투를 위한 격려와 위로를 제공하는 “성경 주석서”임을 강조한다. 문제는 현대에 와서 그 맥락이 매우 약해졌다는 것이다. 그러한 변화는 신학 내부적으로뿐 아니라 서구 과학의 발달과정과도 연관이 있다고 보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17세기 중반과 20세기 중반 사이 300년이 넘는 기간 동안의 “이념전쟁”에서 승리한 진영, 즉 계몽주의, 경험주의, 세속주의를 포괄하는 현대주의가 미친 영향이 매우 크다 (Johnson, 2012: 82). 현대주의 영향 아래 기독교 내 심리학에 우호적인 학자들의 접근 방식이 목회돌봄에 영향을 주었다(Herding, 2004; Lambert, 2015; 2016). 이와 같은 것들을 고려할 때 청교도가 주목받는 이유는 그들이 남긴 풍부한 자원 때문만이 아니라 역사적 상황들 속에서 기독교적 세계관의 영향력이 크게 축소된 결과 영혼돌봄의 전통이 청교도 시대 이후 단절되었다는 인식과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기독교 역사에서 영혼돌봄의 ‘전통의 단절’이 일어난 3세기 동안 교회 밖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확인하려면 영혼돌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심리학과 정신의학의 역사 또한 살펴봐야 한다. 현대 심리학이 분트(Wundt)의 실험실에서 시작되어 인간의 인지, 정서, 행동을 다루는 행동과학 분야의 발전 계기를 마련했다면 정신의학은 프로이드가 이전 십수세기의 전통에서 벗어나 새로운 방법론을 제기한 것으로 전환점을 맞

이하였으며(Duffin, 2006) 20세기 동안 정신건강에 대한 이해와 치료접근은 그 다양성이 더욱 증폭되어, 현재 약 400여 개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다(권석만, 2013; Tan, 2014). 오늘날 뇌과학 발달을 바탕으로 하는 뇌 기반 심리치료는 생물정신학과 함께 인간의 마음의 문제들을 신체 기능과 연결시켜 이해하고 치료하고 있어서(Cozolino, 2013), 마음의 문제에 대한 물리적 접근을 활용하면서도 몸과 마음의 통합을 시도하고 있으나 이 역시 몸, 정신, 영혼의 유기적 관계를 온전히 포괄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역사적 고찰을 통해 알 수 있는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어떤 치료법이 개발되고 실행되던 간에 인간의 영적 실재(reality)를 배제한 채 인간을 이해하고 도우려는 노력들은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한계를 생각하면 어려움을 겪는 영혼들을 이러한 치료접근에만 맡길 수는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영적인 상태가 질병의 전체 경과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경우도 예외가 아니다. 그렇다면 영적 상태와 경계가 모호한 심리적 정신적 문제는 더욱 그러하리라는 것은 자명해 보인다. 그러므로 어떤 치료접근도 ‘영혼돌봄’의 포괄성을 능가하거나 대신할 수 없으며, 기독교상담은 영혼돌봄의 목적에 충실하게 기여할 수 있는 보다 나은 원리와 방법론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잃어버린 전통으로 돌아가 배움으로써 이러한 목적에 보다 가까이 갈 수 있을 것이다.

2. 청교도 영혼돌봄 자원의 유용성 및 분석 : 원인론 및 진단, 치유 방안을 중심으로

영혼돌봄을 위한 청교도 자원 활용과 관련하여 Keller(1988)는 그 특징과 유용성의 근거로 성경의 권위, 정교하고 예민한 진단 체계, 마음에 관한 성경적 가르침을 통한 균형, 죄 문제와의 관련성에 대한 현실적인

통찰, 내적 동기와 욕망 통찰, 영적 처방에 있어서 믿음의 적용을 제시하였다. Deckard(2010)는 사람들이 씨름하는 중요한 주제들과 관련하여 성경적 답변을 찾거나 노력했던 청교도 목회자들과 그들의 저술을 토대로 대표적인 주제를 하나님의 섭리와 신정론적 질문, 불안과 불만족, 죄에 대한 통찰과 죄죽임, 영적 추구과정의 고독, 정서의 분별, 영적 침체의 원인과 치유, 사탄의 영향력과 그 대처에 관한 것으로 구분하였다(안경승, 2015). 이러한 주제들은 오늘날 상담실을 찾는 내담자들의 호소문제들과 무관하지 않다. 표면적인 호소문제 이면에 언제나 영적인 문제들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씨름하는 질문들이 있기 마련이다. 본 논고에서는 전체적인 특징을 살펴보는데 그치는 기존 논의에서 나아가 청교도 경건주의를 중심으로 청교도 영혼돌봄의 지향점과 목적을 확인하고, 그들의 저술들을 중심으로 어떤 작업들이 이루어졌으며 오늘날 기독교상담과 어떻게 접목될 수 있을지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청교도”란, 그 이름 자체가 “진흙 구덩이에서 나왔다”고 할 정도로 16세기 중반 풍자적인 이름으로 불리기 시작한 일단의 무리를 지칭한 말이다(Ryken, 1986: ix). 이러한 오명과 반청교도 감정을 불식시키는데 공헌한 Packer는 이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방법을 여섯 가지로 보았다. 첫째, 일상의 통합, 둘째, 성경중심적이고 경건을 추구하는 영적 경험의 특징, 셋째, 실천적인 열심, 넷째, 가정을 견고히 세우기 위한 관심과 실천, 다섯째, 인간의 가치를 중시하는 관점, 여섯째, 교회 갱신에 관한 이상이 그것이다(McGrath, 2004; Packer, 2016). 청교도들의 핵심적 관심은 경건에 있었으며 그들의 지향점과 목적은 영적 쇄신과 부흥이었다(Lloyd-Jones, 1990; Packer, 2016). 초기 청교도들이 영국의 교회 제도가 참된 영적 성숙과 거룩에 걸림돌이 된다고 보고 제도의 개혁을 위해 노력하다가 탄압이 거세지자 개인적인 경건 추구로 방향을 틀었던 것이 청교도 경건주의의 발달배경이라고 본다. 청교도들의 신학 및 목회

연구의 목적이 삶으로 나타나는 경건과 직접적인 영혼돌봄에 강조점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저작들은 매우 실천적이면서도 실제적이다. 신학적, 교리적 지식뿐 아니라 영혼돌봄의 실천과정에서의 경험적 통찰과 분석, 대응방안을 고민하는 과정의 결과물들이기 때문이다(서창원, 2013; 원종천, 2015; Lewis, 1979; Packer, 2016). 따라서 영혼돌봄을 담당하는 목회자와 상담자들에게 필요한 도움, 신학적으로 건전하며 실제적으로 유용한 자원을 제공하고 있다. 청교도 저작들을 기독교상담 자원으로 활용한다고 할 때, 어떤 방식으로 접촉점을 찾을 수 있을지에 대하여 크게 원인론과 진단, 대응 및 치유방안의 두 영역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원인론과 진단에 있어서 특히 세속 학문에서 이상심리에 대한 이해와 차별점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치유방안은 원인 및 진단에 대한 이해에 의존하기에 이 역시 같은 맥락에서의 차별점을 확인할 수 있다.

1) 원인론과 진단 : 이상심리에 대한 이해에 있어서 세속 학문과의 차별점을 중심으로

‘이상심리학’을 “인간의 심리적 고통과 불행”에 대한 관심에서 비롯된 “정신세계에 대한 탐구”이자 “이상행동과 심리장애를 과학적으로 연구하는 심리학 분야”라고 정의할 때(권석만, 2007: 21) 원인에 대한 관점은 여러 갈래로 나누어져 정신분석, 행동주의, 인지주의, 생물학적 관점, 사회문화적 관점 등 매우 다양한 관점과 연구방법론들이 있다(권석만, 2002; 2007; Coleman & Broen Jr., 1972). 그러나 이상심리에 대한 현대적 개념의 원인론은 각각 인간의 존재적 실재로부터 몸과 마음을 나누고, 인간의 기능 중 행동과 인지를 나누며, 유전적 영향과 환경을 나누는 식으로 파편화되는 경향을 보여 ‘환원주의’의 위험을 피하기가 어렵다. 또한 진단에 있어서 정상성과 이상성을 나누는 기준으로 인간의 적응하는 기능의 문제, 자신이 느끼는 주관적이고 개인적인 고통, 사회적

규범이나 통계적 기준이 사용되지만, 이러한 기준 자체도 모호하다는 한계를 지닌다(권석만, 2007; 안경승, 2007). ‘의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Hippocrates 이래 오랫동안 hysteria, hypochondria 등으로 불렸던 증상군들은 오늘날 매우 세분화된 분류체계를 갖게 되었지만 사실상 여타 의학 분야와 다르게 정신의학 분야의 진단은 주관적 증상보고와 관찰을 토대로 이루어진다. 혈액이나 방사선 등의 물리적 검사결과를 통해 해부학적인 병소(病所)나 생리학적 질병 기전을 확증할 수 없는 것들이 대부분이다. 즉, 현상을 가지고 ‘증상군’을 구분하고 기술한(descriptive) 분류학(nosology)에 해당한다(Duffin, 2006; Shorter, 2009). 미국정신의학회에서 제정하여 정신질환의 진단을 위한 교과서처럼 사용되는 DSM은 수차례 개정되어 DSM-5까지 변천을 겪었지만, 정신과 의사들 중에서조차 이에 대해 회의적인 견해를 가진 이가 적지 않고 단극성과 연속성의 문제, 임의성과 주관성 문제, 당위성 부족 등의 문제들이 지적된다. 이처럼 이상심리학에서의 진단은 그 객관성과 실효성에 있어서 의심받고 있다. 진단은 원인에 대한 분석 및 현상에 대한 관찰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원인론과 현상학을 포함해야 하는데, 오늘날 이상심리학 진단은 현상학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원인 및 치료접근과의 유기적인 연결이 충분치 못하다. “산수계산이나 읽기 학습을 잘 못하는 것과 같은 문제가 정신과장애로 간주되어야” 하는지 의문이 제기되고(Davison et al., 2005: 22-26), 과잉진단과 처방원칙의 결핍에 대하여 “안전하지도 과학적이지도 않은 매뉴얼”이라고 평가되며(Frances, 2014: 78), 넘쳐나는 과잉진단 속에 정작 중요한 진단은 빠졌다는 비판을 받는다(van der Kolk, 2016). 프로작이나 리탈린 같은 최빈도 처방약물의 선택과 처방이 “시장원리와 마케팅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 또한 진단체계에 문제가 있음을 시사한다(Rees & Rose, 2010: 275-319). Pruyser(2002)는 목회 돌봄에서 진단이라는 개념 적용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이유가

진단을 의학에 국한된 것으로 생각해 영적인 것과 심리적인 것을 구분하고 사역에서도 구분하여 목회자의 역할이 제한되어 왔기 때문이지만, 사실상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 먼저 목사를 찾아가는 이유가 있는데 바로 영혼돌봄을 원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청교도들은 이상심리학적 개념화를 하지는 않았지만, 저서들을 보면 원인과 진단에 있어서 깊은 통찰과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을 돌보는 비상한 열심을 가졌음을 알 수 있다. 원인론에 대해서 청교도들은 마음의 문제의 원인을 주로 세 영역으로 나누어 이해했던 것으로 보인다. 문제를 허용하거나 일으키거나 본질적 연약함으로 인해 휩쓸리거나 문제를 가중시키거나 치유를 방해하는 주체들로서, 하나님, 인간 자신, 사탄을 말한다. Goodwin(2001: 50)은 이 세 주체가 “고통의 동인”으로서 신자로 하여금 어둠 가운데 처하게 만든다고 보고, 우리의 유익을 위해 어둠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목적과 사례들, 인간 자신의 연약함과 죄성, “육적인 이성”과 그와 관련된 정서적 문제, 양심의 오염, 이러한 문제들을 이용하며 작용하는 사탄의 활동을 상세히 풀어나간다. 또한 인간의 이성과 정서가 연결되어 서로 영향을 미치는 것, 양심 및 의지의 활동의 중요성, 인간의 죄성이 이 모든 것에 미치는 영향을 포착하고 다루었다(Owen, 2013). 특히 Baxter는 영혼돌봄에 있어서 가장 정교한 체계를 제시한 사람으로 여겨진다(Beeke & Jones, 2015). 그는 우울증을 “마음과 상상력에 생긴 질병”이라고 정의하며 우울증의 원인으로 상실, 사고의 왜곡, 신체적 탈진, 지나친 감정, 기질적 이상, 죄의 여섯 가지로 보았다. ‘죄’를 포함시킨 것을 제외하면 오늘날 이상심리학에서 우울증의 원인을 신체적 요인, 사고(비합리적 신념), 정서(분노, 죄책감, 두려움과 불안 등), 성격적 요인, 외적 환경(상실 등) 등으로 보는 것과 다르지 않다. 진단에 있어서도 그가 제시한 무려 35가지의 “징표”들은 DSM 진단기준에 해당되는 대부분의 증상을 포함할 뿐 아니라, 영적 해석을 포괄하는 예리

한 관찰과 분석을 보여준다(APA, 2013; Baxter, 2018: 115-132). 그밖에 성도의 낙심과 절망의 원인 및 대처방안과 관련하여 우울증을 영적 침체의 범주로 다루거나(Bridge, 2018), 양심과 사탄이 사람의 실패와 죄에 대하여 공격하는 상태, 즉 죄책감과 “낮은 자기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참소(accumation)”가 우울을 일으키는 원인 중 하나라고 보았다(Brooks, 2007:367-392).¹⁾

청교도들의 원인론 및 진단은 현대 이상심리학과는 그 출발점 자체가 다르다. 청교도들의 관심은 영혼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 자신, 그리고 사탄의 영향력을 중심으로 인간의 문제를 이해했다. 즉, 인격적인 주체를 중심으로 본 것이다. 이는 세속학문의 이상심리 이해가 인간과 환경 및 그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하는 것과 큰 차이를 보인다. 청교도들은 인간 자신을 다룰 때 몸과 마음을 나누지 않고 상호 영향을 주고받는 전인적, 전체론적 관점을 견지하였으며, 인간의 지, 정, 의와 관련된 기능들로서의 인지, 행동, 정서, 동기 등을 나누지 않고, 유전보다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으로서의 가정에서의 기록의 추구에 관심이 있었으며(Baxter, 2013: 187), 환경은 세 주체들의 인격적인 활동 밖에 있는 것으로 인격적 활동과 함께 영향을 미칠 수는 있으나 어디까지나 주변 요인일 뿐 어떤 것을 결정하는 요인은 아니라고 보았다. 또한 청교도들은 인간 자신의 문제 영역의 중요한 부분으로 죄를 다룬다. 죄는 인간의 인지, 정서, 동기, 의지와 행동 전반에 걸쳐 매우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즉, 인간 존재의 현실에 있어서 매우 핵심적인 문제다. 그러나 오늘날 상담에서 죄의 영역은 기독교상담에서조차 잘 다루어지지 않으며(Monroe, 2001; Powlison, 2001) 지금까지 사탄의 영향력에 대한 것은 귀신들림과 정신병의 경계와 분별에 대한 논의에 제한

1) Keller(1988:31)는 이를 “양심의 병리학(pathologies of the conscience)”이라고 명명했다.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Bufford, 1988). 이는 죄나 사탄이라는 주제가 현대 심리학 연구방법론으로 풀기에 쉽지 않은 주제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세속심리학의 패러다임의 한계에 갇혀 충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지 못해왔기 때문이기도 하다고 본다(전요섭 외, 2004; Backus, 2017; McMinn, 2011). 앞서 언급한 역사적 단절은 진단에서도 같은 양상을 보이며 이러한 주제에 관해 “신학적 방치”가 있었음을 시사한다(Lambert, 2015: 36-50). 이에 관심을 가지고 기독교상담에서 영적 진단을 위한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2) 치유방안

다음으로 대응 및 치유방안을 살펴보자. 치유방법은 원인과 진단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갖는다. 세속 학문은 이상 심리에 대한 이해에 따라 인지, 정서, 행동에 대한 치료적 접근을 하거나 생물정신의학적으로 약물투여를 통한 해법을 제시한다. 간격청교도들은 전체적으로 볼 때 영적이고 통전적인 차원으로 접근했는데 각자가 신학과 목회에 임하면서 부딪히는 문제들을 중심으로 지식과 경험을 정리해 나갔기 때문에 어떤 하나의 틀에 맞추어 정리한다는 것이 쉽지 않다. 그 한계를 염두에 두고 시도해 보되 앞서 언급한 세 가지 원인에 따른 해결 방안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경험에 기초한 치유방안이다. 청교도들은 진리를 아는 것이 인간의 문제해결의 출발점이자 삶의 방향을 제시해주는 해결책임을 알았다. 따라서 그들이 삼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의 필수성과 중요성 및 그 효력을 강조한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이는 하나님을 향한 또는 하나님 쪽으로의 어떤 움직임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 지식은 변화를 일으키며, 아는 것을 삶으로 드러내는 “능동적이며 자기표출적 지식이며, 겸손하게 하는 지식이

자 신뢰의 지식이며 자라가는 지식”이다(Charnock, 2012: 58-125). 청교도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음을 알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대해 탐구하였다. 성령에 대한 지식 또한 함께 다루었는데, 성령의 조명, 구원의 여정에서 성령의 활동과 작용에 대해 탐구하고 가르쳤다(Charnock, 2012; Owen, 1999, 2005). 삼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우리의 존재와 인격, 삶과 동떨어진 사색적 지식이 아니라 작용하고 경험되는 지식이며 위로하는 지식으로서 기능한다(Charnock, 2013). 이는 ‘참된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한 것, 신자의 구원의 여정, 그리고 삶에서 역경을 만날 때 이를 어떻게 해석해 낼지에 대한 것들을 포함한다. 청교도들은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는 것과 거룩한 삶에 대해 정밀하게 탐구하였으며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에 대한 믿음, 믿음의 행위, 믿음의 속성에 대해 살펴보았다(Baxter, 2017; Bunyan, 2007; Charnock, 2000; 2012; Goodwin, 2001; 2013; Owen, 2002). 또한 삶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이러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이해되고 작용하는지에 대해 ‘섭리(Providence)’를 주제로 통찰하였다(Boston, 2017; Flavel, 2017; Watson, 1997). 이러한 것들이 치유를 위한 방안이 되는 이유는 다름 아닌 진리로 인한 자유와(요 8:32)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안에서 누리는 확신과 위로와 평안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거듭나지 않은 상태에서 인간은 온전히 행복할 수 없고 많은 문제 속에 방향을 잃게 되며, 설사 만족스러운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실상은 어둠 가운데 더듬는 것에 불과하며 그 마지막이 사망이기 때문이다(Goodwin, 2001). 또한 거듭난 신자에게도 명확한 지식은 혼란을 피하고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므로 매우 중요하다.

둘째, 인간 자신의 문제와 그 대처방안이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거듭남과 칭의를 통과한 신자에게 남아있는 죄와 그 영향력으로 인한 여러

가지 어려움에 대한 이해는 매우 중요하다. 거듭난 것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성화의 삶을 살아내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맞닥뜨리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 죄가 마음 안에서 작용하는 원리에 대해 알아야 함을 강조하며 상세히 고찰하고(Owen, 2009; 2013; 2015) 다양한 상황에서 '마음을 지키는 것'의 중요성 및 그 방법을 제시하였다(Flavel, 1999). 또한 생각과 감정과 욕구를 다루어야 한다고 보고 그 지침들과 함께 "마음의 죄와 싸우는 법", "불신앙, 마음의 강박함, 위선, 사람을 우상화하는 것, 교만, 탐욕 및 부에 대한 사랑, 세상염려, 음행 및 관능 추구"에 대한 지침을 제시하였다(Baxter, 2018: 559-759). 청교도들은 인간의 지, 정, 의가 어떻게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지, 죄의 오염과 영향력이 어떻게 이와 상호작용하는지 탐구하여 제시함으로써, 문제를 다루고 대처할 뿐 아니라 예방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하였다.

셋째, 사탄의 활동과 그에 대한 대처방안이다. 이는 죄와 밀접한 관련 속에서 다루어졌다. 사탄의 시험은 외부적으로 주어지는 것이지만, 죄된 인간의 마음이 이에 반응하여 유혹에 빠지고 어려움과 고통을 겪게 되기 때문이다. 인간 안에 잔존하는 죄와 사탄의 활동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의 삶이 '영적 전쟁'임을 인식한 청교도들은 방어만이 아니라 적극적인 공격을 통해 영혼을 지킬 것을 권고하였다(Bunyan, 2016). "진영으로 침입하는 사탄 막으려면 먼저 사탄 진영으로 쳐들어가라...대적하라, 피해를 입히라"는 것이다(Bridge, 2018: 83). '자신, 사탄, 세상, 천국'을 침노하라며 거룩한 열정과 열심을 강조, 권면하였다(Watson, 2014). 인간 안에 있는 죄에 대한 대처방안으로 '죄죽임'이 중요하게 다루어졌다(Owen, 2009). 사탄의 영향력과 활동에 대하여 Brooks(2007)는 죄로 이끄는 12가지 유형의 유혹(temptation), 거룩한 의무를 나태하게 하거나 방해하는 낙담(discouragement)의 책략 8가지, 우울(depression)에 빠지

게 하는 책략 8가지, 사람들을 유혹하여 파멸시키기 위한 영적 교만 (pride)의 책략 4가지에 대해 다루고 그 대처방법을 제시한다. 이와 같은 청교도들의 해법은 사탄이 인간의 인지와 정서 및 동기와 행동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세밀하게 탐구한 결과로서, 오늘날 기독교상담 연구에서 찾아보기 힘든 독특한 영역이다. 또한 비합리적 사고, 역기능적 신념, 과도한 죄책감 등 여러 가지 증상을 유발하는 사고 및 정서적 고통과도 관련되는데, 이러한 내용들에 관심을 가지고 지금까지의 기독교상담 방법론들과의 접촉점을 찾기 위해 연구할 가치가 있다.

이상에서, 청교도들이 하나님, 인간, 사탄과 관련하여 인간의 본질과 문제들, 그 해결방안에 대하여 고찰한 것들을 알아보았다. 청교도들이 영혼돌봄을 위해 지식적, 경험적으로 제시한 내용들은 그 양에 있어서 방대하고 깊이에 있어서 심층적이다. 성경과 교리적 지식뿐 아니라 인간에 대한 전인적 이해를 바탕으로 매우 실천적인 돌봄을 제공하였음을 알 수 있다.

3. 청교도 영혼돌봄의 자원들의 특징

지금까지의 고찰을 토대로 영혼돌봄을 위해 청교도들로부터 배울 수 있는 중요한 자원들을 확인해보자. 청교도들이 성경중심적이었다는 사실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으나, 이는 가장 핵심적이고 전제적인 요소이기에 이 점에 대해서는 자세히 다루지 않고 나아가고자 한다. 그들이 인간을 이해하고 돕는 데 있어서 특히 구원론을 기초로 삼위 하나님과의 관계, 그중에서도 특히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중시했던 점, 인간에 대한 이해와 접근의 통전성, 돌봄에 있어서 지혜와 사랑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삼위 하나님과의 관계 중심성 : 연합과 교제의 그리스도 중심적 경건

앞서 청교도들이 삼위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 믿음에 있어서 반드시 자리 잡아야 한다고 보았음을 살펴보았다. 하나님 자신의 속성과 성품, 섭리에 대한 지식을 통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삶에 적용하는 것,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이 자신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알고 묵상하며 믿음을 위해 사용하는 것, 성령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과 묵상과 기도로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예배하며 추구하는 것, 이 모든 것이 함께 어우러져 은혜 안에서 성장해 가는 것이 신자의 마땅한 바이자 특권이다. 청교도들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한 교리적, 실천적 지식을 탐구하고 전달하는데 열심이였다. 성도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 각각 '구별' 되게 교제하는 것에 대하여 고찰하면서, 교제의 기초와 방법 및 그 효력에 대해 살펴보고 사탄의 방해에 대해서도 다루었다 (Owen, 2016). 청교도들은 칼빈의 그리스도와의 '연합' 교리를 이어받았으면서도 '교제' 를 특히 강조했다고 보는데, "윤리지향적" 측면 뿐 아니라, "애정적이고도 정서적" 영성의 특징을 갖는다고 본다(원종천, 2002: 316-317). 본 논고에서는 이러한 '연합' 과 '교제' 와 관련하여 청교도들의 그리스도 중심성의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청교도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 접근한 방식을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하나는 위로부터의 접근, 즉 그리스도의 성도들에 대한 사랑이고 다른 하나는 아래로부터의 접근, 즉 그리스도에 대한 성도들의 사랑이다. 이에 대해 먼저 믿음의 대상이시며 칭의의 근거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밝히 설명하고 제시하고자 하였다(Goodwin, 2018).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인성과 고난을 겪으신 경험에서 나오는 은혜로운 마음과 "사랑의 능력"으로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을 향한 동정의 마음을 가지고 계심을 아는 것으로 위로받고 그분 앞에 담대히 나아가도록 권면한다 (Beeke & Jones, 2015: 450). 회심한 자녀들 속에 있는 많은 결점에도

불구하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말한다(Sibbes, 2015). 그리스도인이 보지 못하는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이며, 그리스도에 대한 필요와 그리스도의 아름다움 때문이다(Vincent, 2001). 예수님의 사역을 영원 전부터 재림에 이르기까지 상세하게 밝히면서 ‘바라보는 것’, 즉 각각의 사역과 관련하여 예수님에 대한 지식, 생각, 갈망, 소망, 믿음, 사랑, 기쁨, 간구, 닦아가는 것을 가르친다(Ambrose, 2011). 엡 3:17-19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 깊이와 높이에 대해 강론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에 의지하도록 권고한다(Bunyan, 2007). 한편 죄로 인해 평안이 깨졌을 때 평안과 위로를 얻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으로부터 시작하지 말고 “그리스도로부터 시작”해야 함을 강조한다. “그리스도와 함께... 시작해서... 죄를 향해 내려와야 합니다.... 죄로부터 시작하면 분명히 그리스도에게 올라가지 못할 것입니다.”라고 권면했다(Bridge, 2018: 49). 이상에서, 청교도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논할 때 그 출발점으로 삼고 더욱 강조점을 두었던 것은 ‘위로부터의’ 그리스도의 사랑이었음을 알 수 있다.

2) ‘마음’의 문제에 대한 통전적 접근

청교도들에게 있어 ‘마음’이란 하나님 앞에서 반응하는 총체적인 전인을 한 단어로 표현한 것이었다. “사람의 진정한 실체는 마음에 있다.”고 하였으며(Owen, 2016: 206) “마음(heart)은 육신의 심장과 같은 단어로 쓰이지만, 여기서는 영적인 부분...을 뜻한다.”고 보았다(Sibbes, 2018: 29). 인간의 실존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심에 두고 보았고 인간의 물질적, 영적 실체를 포괄하고 지, 정, 의를 포괄하면서 모든 것을 인간의 존재 목적과 연결시키는 통전적 관점을 가지고 있었다. 이는 헬라철학이나 근대 과학의 이분법적 사고와도 차별화되는, 성경적인 인간

관에 기초한 관점이다. 이들이 보인 관계 중심성 역시 통전성을 띠며, 수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는 필연적으로 수평적인 타인과의 관계 및 내적으로 자기 자신과의 관계와 상호작용한다는 것을 잘 알았다. “인간의 가장 중요한 소명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당시에 의도하셨던 인간됨의 회복”이라고 보았던 그들은 마음의 중요성에 집중하였다(Owen, 2009: 13). 하나님 앞에서 반응하기에 적합한 마음으로서의 ‘상한 심령’, ‘부드러운 마음’이 권장되었고(Bunyun, 2013) ‘인간됨의 회복’을 가장 방해하는 인간 내면의 요소이자 힘인 죄의 문제를 매우 심각하고 깊이 있게 다루었다(Owen, 2009; 2015; 2016; Sedgwick, 2001). 이러한 관심은 실천적인 적용에까지 미쳤다. 사고와 관련하여 ‘악하고 게으른 생각’에 대응하기, ‘선한 생각’으로 마음 채우기, ‘우울증’에 대처하기를 다루었고, 감정에 있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악된 감정들, 죄에서 비롯된 분노, 두려움, 슬픔, 절망과 회의를 살폈다. 그 자체로는 문제가 없는 우리의 시각, 청각, 미각과 식욕이 죄의 통로가 될 수 있음에 주의하도록 하고 음행과 정욕을 다스리도록 가르쳤다. 이에 더하여 시간 사용, 언어 생활, 일, 놀이, 옷 입는 것에 이르기까지 일상생활에서 주의해야 할 것들을 상세하게 다루었다. 실로 몸과 마음의 통합뿐 아니라 일상의 통합을 위한 깊고 넓은 통찰을 보여준다(Baxter, 2018). 하나님을 향해 활기 있게 반응하지 못하는 상태, 즉 절망, 낙담, 불안의 정서를 동반하는 영적인 침체와 관련하여 그 원인을 분석하고 치유방안을 제시하였고(Bridge, 2018) ‘낙담’과 ‘불안’을 경험하는 이유 및 대처방법을 다루었다(Love, 2007). ‘애도자들을 위한 상담’이라는 부제를 붙인 책에서는 신자가 상실을 경험할 때 허용되는 슬픔과 지나친 슬픔이 무엇인지 다루고 위로와 조언을 건넨다(Flavel, 2016). 청교도들이 부정적인 감정만을 다룬 것은 아니었다. 신자가 이 세상에서 누리는 기쁨과 즐거움에 대하여 ‘확신’의 근거와 장애물이 무엇인지 밝히고 동기 부여를 하고자 하였

고(Brooks, 2012) 하나님의 약속이 주는 기쁨과 즐거움의 영광스러움을 전달하고자 하였다(Baxter, 2012; Sibbes, 2008).

3) 돌봄에 있어서의 지혜와 사랑

마지막으로, 돌봄의 실천에 있어서 청교도들이 보인 지혜와 사랑의 자원을 살펴보고자 한다. 청교도들은 교리에 있어서 정교했을 뿐 아니라 실제적인 돌봄에도 매우 열정적이었으며 돌봄 중심적인 목회를 하였다. 그 특징을 몇 가지 분석해 보고자 한다.

첫째, 돌보는 영혼의 개별적인 상태를 분별하는 것을 중요시했는데, 영적, 심리적, 신체적 상태를 살펴서 그에 맞는 적절한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성경을 토대로 교리적인 지식을 정립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나, 이를 구체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에 적용하는 데에는 개별적인 양 또한 중요하다. 청교도들은 구원론에 있어서 추구했던 정밀성만큼이나, 직접 영혼을 만날 때 그 사람이 구원의 여정 중에 어떤 단계와 상태에 있는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그것의 핵심 원인이 무엇인지에 따라 다르게 도움 필요를 인식하였다. 가장 먼저 회심의 여부를 살피고, 확실하지 않으면 이를 파악하기 위해 시간을 들이며, 은혜를 구하나 죄책감과 회의에 시달리는 경우, 회심한 경우라도 연약한 성도들과 특정한 죄를 지었거나 영적 침체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구분하여 도와주어야 한다고 보았다. 또한 각 사람의 나이, 성별, 직업, 사회적, 경제적 상태, 지적 능력, 기질과 성격에 따라서도 개별화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10년간 공적 설교에서보다 반시간 정도 숨김없이 털어놓는 시간 가질 때 더 많은 지식과 양심의 각성을 얻었다.”고 하며 개별적인 만남의 시간이 영적 변화에 매우 유효함을 강조하였다(Baxter, 2014: 346-359). 또 한 가지 돌봄의 지혜는 심리적 상태 또한 잘 분별하여 다르게 접근할 필요를 제시했다는 것이다. 특히 우울증의 경우 목상을 비롯한 영적인 의무들을

감당하는 것을 조절해야 할 필요를 강조했다. “목사는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이 감당할 수 있는 의무가 아니다....감당할 수 없다고 느끼는 어떤 은밀한 의무에 너무 오랫동안 머물러 있지 말라.”고 권면한다(Baxter, 2018: 124-136). 이러한 조언들 중에는 오늘날의 인지치료나 긍정심리학적 치료접근과도 유사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신체적 문제가 우울증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과 우울증이 몸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이해하고 필요시 의사를 찾아 병을 치료하라고 권한다. 우울증은 그 원인이 신체적인 것 아니더라도 신체적 돌봄이 큰 도움이 되는데, 당시의 의학 수준을 감안할 때 매우 뛰어날 뿐 아니라 전체적으로 균형 잡혀 있음을 볼 수 있다(Baxter, 2018). 또한 영적 침체 또는 질병으로 고통 받는 환자를 도울 때, 진정한 하늘로부터의 위로가 없이 피상적인 위로와 안심이 오히려 해를 끼칠 수 있음을 알고, 회심하지 않은 사람 또는 죄에 대해 올바른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사람에게 너무 빨리, 너무 쉽게 위로를 적용시키지 않도록 주의하였던 것을 알 수 있다(박영호, 2002; Flavel, 2016). 이처럼, 청교도들은 개별적, 영적 진단에 따른 접근방법의 차별화를 중요시했다.

둘째, 가정 중심의 돌봄이다. 그리스도와 신자의 관계를 목자와 양의 관계로 보았고, 이는 목회자와 성도들과의 관계뿐 아니라 가정의 가장과 가족들과의 관계에도 적용되었다. 가장이 가정을 돌보는 것을 매우 중시하여 목회자가 가장들이 이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직접 방문하여 교리문답과 신앙교육을 실시하되 가장이 가정을 돌보고 있는 상태를 파악하고 부족한 점을 깨우치며 “마음의 짐을 함께” 지도하도록 하였다. 가족들과 함께 성경 읽는 것과 기도하는 것, 경건서적 읽는 것을 확인하고 특히 주일에 교회에서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고 집에 돌아가서는 교리문답서를 암송하고 설교 소감을 나누도록 하는 등 “가정을 개혁”하는 일을 매우 중요시하였다(Baxter, 2014: 131-

136). 가정 안에서 올바른 지식과 신앙 및 삶의 태도가 길러지면, 사실상 많은 것들이 예방된다는 점에서 이는 매우 중요한 돌봄임을 알 수 있다.

셋째, 청교도들은 온정적이고 지지적인 사랑과 긍휼의 마음으로 성도들을 대하고자 하였다. “지나친 엄격함 때문에 곤경에 빠진 영혼에게 위로를 주지 못하고 돌려보내는” 잘못을 범하지 말 것, “근거 없이 까다로운 기준들을 만들지 말 것”을 강조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 “인내와 온유함”으로 승리하도록, 특히 연약한 성도들에게 온유하도록 권면했다(Sibbes, 2015: 71-88). 성도들에게 “혹시라도 기분 상하게 한 것에 대해 용서를 구하는 말로 그들 마음 달래주고... 성도들의 영혼에 대한 여러분의 사랑을 분명히 드러내면서 이 모든 일을 수행하라.”고 하였다(Baxter, 2014: 331-361). 그들은 영혼들을 정밀하게 살피고 엄중하게 경고하며 간곡히 설득하고, 때로 책망하면서도 긍휼 어린 태도를 잃지 않고자 하였다. 교리교육과 함께 실생활에서 맞닥뜨리는 어려움에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 지침들을 제시한 것은 지시적인 측면이 있다. 그러나 지시적으로 전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어려움을 동정적으로 이해하고 온화하고 지지적인 태도로 지도하고 돕고자 하였다.

넷째, 돌보는 자의 자기성찰과 겸손의 자세다. 누구보다 자신이 먼저 “그리스도께서 끄지 않으실 심지인가” 돌아보길 권고하였으며(Sibbes, 2015: 89-109) 돌보는 자가 자신의 구원과 은혜를 먼저 살피고 자신의 행동과 가르침이 일치하는지 위선의 죄가 있는지, 사역에 필요한 자질이 있는지 점검하도록 권면한다. 돌보는 자 또한 동일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을 뿐 아니라 더 큰 위험의 요소가 있고 더 큰 책망을 받을 것이기에 더 큰 은혜가 요구된다고 하였다(Baxter, 2014). 이러한 원리는 돌보는 자만이 아니라 성도라면 누구나 말씀에 비추어 자기를 돌아보고 점검해야 하는 것이다. 청교도들은 ‘내향적(introspective)’ 이지 않은, 적절하고 균형 잡힌 자기점검의 중요성을 알고 있었다. “꼼꼼한 양심”이라 불리는

과도한 양심의 질책과 지나친 자기비난을 경계하였다(Beeke & Jones, 2015: 1041-1044). “겸손의 의무”를 특별히 강조하였고, 그 밖에도 돌봄의 자세로서 다양한 덕목들을 제시하여 신중하고 질서 있게, 열정적으로, 오래참음과 인내로,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감당할 것을 촉구하였다(Baxter, 2014: 147-156, 185-280).

이러한 돌봄 중심적 목회, 개별적 진단에 따른 접근의 차별화, 가정과 공동체 중심, 따뜻하고 부드러운 긍휼 어린 마음, 자기점검을 통한 모범과 겸손한 자세, 신중하면서도 열정적인 태도들이 매우 치유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었으리라 짐작할 수 있다.

4. 청교도 영혼돌봄 자원을 활용한 기독교상담 연구를 위한 제언

지금까지 알아본 청교도 영혼돌봄의 자원들과 그 특징들을 기독교상담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종합적인 체계를 ‘제시’ 하기에는 아직까지 연구가 부족하다고 보고, 기독교상담 연구에 적용할 수 있는 원리들을 생각해 보고자 한다.

1) 원인론과 진단

먼저, 원인론과 관련하여 청교도들이 하나님, 인간, 사탄의 세 주체를 중심으로 보았던 것과 관련하여, 세속 학문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성경적 세계관과 인간관에 기초한 원인론을 새롭게 구축할 필요가 있다. 내담자가 호소하는 문제 이면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인간됨의 요소들 중 어떤 영역에 특히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지, 그러한 어려움이 사탄의 참소로 인해 악화되고 있지 않은지에 대한 분별을 토대로 상담 목표와 과정에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나님과 사탄의 영역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으나, 이에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는

것은 우리의 선택이다. 따라서, 기독교상담자는 이런 문제들을 잘 분별하고 내담자의 독특한 상황과 성격을 이해하고 고난에 동참하면서 함께 길을 가는 중에 실제적인 도움을 제공해야 한다.

다음으로 진단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원인론과 진단이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원인이 되는 주체 중 인간 자신에 대한 연구와 명확히 구분되지 않아 함께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 언급한 바와 같이, 이상심리학은 영적 실재에 대한 무지와 무관심 또는 잘못된 관심으로 인해 근본적으로 성경적 인간관에 접근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예를 들어 21세기 화두가 되고 있는 뇌과학이 인간의 경험과 뇌의 구조와 기능을 통합하면서 새로운 지식들을 제공하고 있으나, 이 역시 ‘환원주의’의 함정에 빠지기 쉬움을 알아야 한다(Rees & Rose, 2010). 기독교상담에서 영적 진단을 위해 현상과 본질을 연결시키는 체계화가 필요하다는 지적과 함께 제안된 진단 모델들이 있다(안경승, 2007). Pruyser(2002: 232)는 “사람이 거룩한 자를 인식하는 것, 섭리, 신앙, 은혜(grace) 혹은 은혜로움(gratefulness), 회개, 공동체, 소명의식”의 7가지 진단영역을 제시하였고, Fitchett(2002: 63-68)은 “전인적 차원” 7가지와 “영적 차원” 7가지를 결합한 7×7 모델을 제시한 바 있다. 이러한 영적 진단을 바탕으로 내담자에 대한 개별화된 평가 및 적절한 목표설정이 가능해질 수 있다. 죄의 탐색 및 진단을 위해 최근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죄”가 “성격 특성”, “내면 특성(substrait)” 혹은 “낮은 단계의 기질(lower-level dispositions)”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련이 있음을 밝혀낸 연구결과가 있다(Backus, 2017: 38-40). 이러한 연구들이 국내에서도 활발히 이루어져 통전성 추구를 포함하는 기독교상담적 원인 및 진단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2) 치유의 원리 회복

마지막으로 치유방안과 관련해서 기독교상담에서 중점을 두어야 할

사항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그리스도 중심성의 회복이다. 세속 심리학이 인간에 대한 이해에 있어서 기여하는 부분이 있다는 점을 수용한다 하더라도 궁극적으로 만날 수 없는 지점이 바로 삼위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믿음이다. 현대심리학이 세속 문화를 장악한 이 시대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유행에 뒤떨어진 것이 되어버렸다. 20세기를 휩쓴 대유행은 바로 자기실현의 추구였다(MacArthur, 2005; Vitz, 2010).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도외시하고 그저 자기 자신의 마음에 신경을 온통 곤두세우고 있습니다....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면서도 왜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습니까?”라는, 3세기 전 질문이 오늘날 여전히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이다.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참된 평안은 우리 밖에서 이루어진 평안을 봄으로써 생겨난다.”고 한 청교도의 통찰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Goodwin, 2002 : 13-16). 자기에게 집중하는 것에서 벗어나 객관적 진리로부터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삶에서 어떻게 적용하고 경험할 수 있을지를 상담과정에 담아내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그리스도께서 “달콤하고 사랑스러우며 다정한 성품”으로 약속해 주신 것을 붙들도록 격려하고 지지하는 것이 필요하다(Bridge, 2018: 45). 이는 기독교상담에 있어서 상담자의 개인적, 내적, 영적 통합의 차원뿐 아니라 상담자와 내담자의 관계에 있어서도 핵심원리가 되어야 하며, 내담자의 영적 성장과 관련한 목표설정에도 적용되어야 한다(Tan, 2014).

둘째, 인간의 문제들은 마음의 부패함과 관련이 있기에, 문제해결과 회복을 위해서는 ‘마음을 지키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 청교도들이 “영혼 전체, 혹은 속사람”에 해당하는 ‘마음’을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과 달콤하면서도 자유로운 교제를 유지하기 위해 모든 거룩한 수단과 의무를 부지런하게 끊임없이 사용하고 활용하는” 것에 열심을 내었던 것처럼, 돌보는 자나 돌봄을 받는 자가 함께 이것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Flavel, 2014: 60-61).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은 바로 “거룩을 창조” 하는 것으로서, 마음, 기억, 양심, 의지, 정서, 육체의 거룩함을 포괄한다. 그중 특히 “정서의 거룩함”은 소망, 사랑, “성령이 주시는 큰 기쁨”,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자신과 다른 사람들의 죄로 인하여 영혼이 질식당하는 고통”과 같은 정서를 포함한다(Perkins, 2016: 333-336). 오늘날 ‘행복’에 집중하는 심리학에 물든 문화와는 질적으로 다른 그리스도인들만의 가치가 아닐 수 없다. 절망에 빠졌을 때 벗어나는 방법으로 “절망의 불합리성(unreasonableness)”을 생각하고, 맞서 사용할 수단으로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의지하고 기다리는 것을 강조하며, “믿음은 모든 절망에 맞서는 도움”임을 알라는 처방(Bridge, 2018: 465), 천국을 생각하는 마음이 마음의 평안을 깨뜨리는 모든 것에 대한 최선의 예방약이 된다는 처방(Baxter, 2012), “그리스도인의 행복은 하나님의 뜻이 최선임을 받아들이는 법을 배울 때 이루어진다.” 행복하기 위해서는 “자신을 부인하라”, “하나님 없이는 만족할 수 없음을 알라.”는 처방(Burroughs, 2010: 47, 54) 등, ‘행복’과 관련하여 청교도들이 활용했던 자원들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유효한 처방이 될 것이다. 이러한 원리들을 상담과정에서 어떻게 담아낼 수 있을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가정 중심의 돌봄을 위한 실천적 방안이 필요하다. 앞서 살펴본 Baxter의 실천으로부터 교훈을 얻어, 무엇보다 가정 중심의 신앙교육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필요하다. 오늘날 다음 세대를 이룰 자녀들이 교회를 이탈하는 현상과 관련하여, 가정에서 믿음을 전수하고 보존하기 위한 실천 방안을 연구, 실행해야 한다. 교회 학교 교육에 치중되기보다는 가정을 어떻게 돌볼 것인지에 대한 관심과 교육의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기독교상담 영역에서도 부모와의 관계가 자녀의 하나님 이미지 형성 및 하나님과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들이 있어 왔는데 주로 현상 연구 또는 개별적으로 어떻게 상

담할 것인지에 초점이 맞추어져 온 경향이 있다. 이제는 예방적인 차원의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교회적 차원에서 가정예배시간을 활용한 교리교육 방법을 가르치거나 믿음과 거룩을 추구하는 경건이 실생활에서 자녀들에게 효과적인 영향을 미치도록 도울 수 있는 부모교육 프로그램이나 자녀와의 관계를 위한 교회 공동체 내 집단상담 프로그램 개발 등의 기독교상담 연구를 제안한다.

청교도 영혼돌봄 자원을 활용한 기독교상담 발전 방향을 이와 같이 정리해 볼 때, 중요한 것은 이를 실제 상담과정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일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흩어져 있던 것들을 정리하는 작업과 함께, 진단과 치유에 있어서의 이러한 원리들을 실제 상담과정에 적용하기 위한 모델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III. 닫는 글

기독교상담이란 단지 상담의 한 방법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과 신학을 근거로 하나님과 인간과 세상을 이해하는 세계관에 기초하여 삶의 여정 속에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돌보고 돕는 활동이다. 이는 결국 영혼을 돌보는 활동이 된다. 따라서 인간 존재의 현실과 그 핵심, 전인격적 존재로서의 인간의 영혼에 대해 이해하고 평가하고 치유하는 모든 활동을 포함한다. 영혼돌봄의 목적과 방향은 올바른 인간 이해에 기초해야 하며 이는 인간 존재의 목적과 연결된다. 인간 존재의 목적이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Boston, 2018: 54)이며 이것을 돕는 것이 영혼돌봄인 것이다. 세속 상담과 심리치료의 목적은 인간의 적절한 기능과 행복에 있으며 그 궁극적 지향점과 목적은 자기 자신이다.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

의 진정한 행복과는 일견 유사해 보일 수 있으나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배제되어 있기 때문이다.

웨스트민스터 소교리문답을 작성했던 청교도들은 성경을 기반으로 삼위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하여 인간에 대한 깊은 통찰과 지혜를 가지고 다양한 영역의 문제들을 연구하고 고민하여 실제 삶에서 구현할 방법들을 가르치고 권면하며 그리스도를 닮은 사랑으로 영혼들을 돌보았다. 본 논고에서는 청교도들의 유산이 역사 속에서 단절되었던 것을 회복하고 그 자원들을 오늘날의 영혼돌봄의 현장 중 하나인 기독교상담에서 적용하기 위한 작업의 일환으로 그들의 영혼돌봄의 특징을 원인 및 진단, 치유방안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청교도들이 삼위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중심에 두었고, 그중에서도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였던 것, 인간에 대한 통전적 관점을 놓치지 않았으며 지혜와 사랑으로 영혼들을 돌보았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특성들이 그리스도인의 내면성(삼위 하나님과의 관계, 자기점검, 돌봄)과 외현성(실천적-경건, 도덕, 이웃사랑)의 조화와 일치, 하나님, 자신, 타인과의 관계에서의 조화와 일치를 이루는 통전적이고 포괄적인 돌봄이 가능하게 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본 논문의 장점은 청교도들의 저작들을 중심으로 살펴보면서 풍부한 자료를 확인하면서 전체적으로 살펴보고 원리 및 특징들을 도출했다는 점으로, 다양한 저자들의 흠어져 있는 주제들을 기독교상담과 관련하여 풀어내는데 집중한 문헌연구로서의 의의를 가진다고 하겠다. 체계 구축을 위한 구체적 제안이나 실제 상담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적용할 방법론 제시가 부족하고 원리에 초점이 맞추어졌다는 점이 제한점이라고 하겠으나, 앞으로 기독교상담 진단 모델과 상담과정 모델을 구축하기 위한 하나의 기초작업으로서의 의의가 있으리라고 본다. 앞으로 이러한 원리를 적용한 사례연구를 비롯한 실험적 연구가 진행된다면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성경적 인간관에 입각하여 기독교상담

적 접근을 체계화하려고 시도한 여타의 연구들로서 성경적상담, 기독교 심리학, 변형심리학 등이 있으나 본 논고에서 다루기에는 논의 범주가 지나치게 확장되기에 후속 연구로 제안하고자 한다.

20세기 심리학이라는 문화적 환경 속 기독교적 대응이 세속 문화와의 대화에 치중되어 있던 경향이 있다고 볼 때, 이제는 기독교 역사와 그 전통과의 대화에 주목해야 할 때가 아닐까 생각된다. 기독교상담이 그 지향점에 있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의 참된 존재 목적과의 일치를 추구한다면 이러한 청교도 영혼돌봄으로부터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 권석만 (2007). *현대 이상심리학*. 서울: 학지사.
- 권석만 (2013). *현대 심리치료와 상담이론*. 서울: 학지사.
- 박영호 (2003). *청교도 실천신학*. 서울: CLC.
- 서창원 (2013). *청교도 신학과 신앙*. 서울: 지평서원.
- 안경승 (2007). 기독교상담과 병리에 대한 이해. *복음과 상담*, 9, 141-167.
- 안경승 (2015). Puritan resources for Biblical pastoral care. *복음과 상담*, 23(1), 233-258.
- 안경승 (2016). 기독교상담과정의 독특성. *복음과 상담*, 24(2), 221-253.
- 원종천 (2002). *칼빈과 청교도 영성*. 서울: 도서출판 하나.
- 원종천 (2015). *청교도 언약사상 개혁운동의 힘*.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 전요섭, 김준수, 황규명, 안경승, 강경미, 이은규, 추부길, 한재희, 오윤선, 김영근, 심수명, 강병문 (2004). *복음주의 기독교상담학*. 서울: 한국가정상담연구소.
- Ambrose, I. (2011). *예수를 바라보라 1,2*(송용자 역, *Looking unto Jesus*). 서울: 부흥과 개혁사. (원전 1658, 1987 출판).
-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2015). *정신질환의 진단 및 통계편람 제5판*(권준수, 김재진, 남궁기, 박원명, 신민섭, 유범희, 윤진상, 이상익, 이승환, 이영식, 이현정, 임효덕 역,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5th Ed.*). 서울: 학지사. (원전 2013 출판).
- Backus, W. (2017).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죄를 극복하는 비결 : 최악 상담 매뉴얼*(전요섭 역, *What your counselor never told you*). 서울: CLC. (원전 2000 출판).
- Baxter, R. (2012). *성도의 영원한 안식*(김기찬 역, *The saints' everlasting rest*). 고양: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원전 1649 출판).
- Baxter, R. (2013). *하나님의 가정*(장호준 역, *The godly home*). 서울: 복 있는 사람. (원전 2010 출판).
- Baxter, R. (2014). *참된 목자*(고성대 역, *The reformed pastor*). 고양: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원전 1656 출판).
- Baxter, R. (2017). *회심으로의 초대*(박문재 역, *A call to the unconverted*). 파주: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원전 1657 출판).

- Baxter, R. (2018). *기독교 생활지침 1, 2*(박홍규 역, *A Christian directory*). 서울: 부흥과 개혁사. (원전 1673 출판).
- Beeke, J. R. (2009). *개혁주의 청교도 영성*(김귀탁 역, *Puritan reformed spirituality*). 서울: 부흥과 개혁사. (원전 2006 출판).
- Beeke, J. R., & Jones, M. (2015). *청교도 신학의 모든 것 : 삶을 위한 교리*(김귀탁 역, *A puritan theology*). 서울: 부흥과 개혁사. (원전 2012 출판).
- Boston, T. (2017). *고통 속에 감추인 은혜의 경륜*(서문 강 역, *The crook in the lot*). 서울: 청교도 신앙사. (원전 1767 출판).
- Boston, T. (2018). *웨스트민스터 소교리문답 해설 1*(장호준 역, *An illustration of the doctrine of the Christian religion*). 서울: 부흥과 개혁사. (원전 1767 출판).
- Bridge, W. (2018). *회복*(김동완 역, *A lifting up for the downcast*). 서울: 복있는 사람. (원전 1961 출판).
- Brooks, T. (2007). *사탄의 책략 물리치기*(서창원, 최도형 역, *Precious remedies against Satan's devices*). 서울: 엘멘. (원전 1657 출판).
- Brooks, T. (2012). *지상에서 누리는 천국*(이태복 역, *Heaven on earth: A treatise on Christian assurance*). 서울: 지평서원. (원전 1983 출판).
- Bufford, R. K. (1988). *Counseling and the demonic*. In G. R. Collins (Ed), *The resources in Christian counseling*, vol. 17. Dallas: Word Books.
- Bunyan, J. (2007).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허미순 역, *All loves excelling : The saint's knowledge of Christ's love*). 서울: 기독교문사. (원전 1854 출판).
- Bunyan, J. (2007).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마리 오 역, *Justification by an imputed righteousness*). 이천: 씨뿌리는 사람. (원전 1854 출판).
- Burroughs, J. (2010). *그리스도인의 귀한 보물 : 만족*(김창영 역, *Learning to be happy; The rare jewel Christian contentment*). 서울: 생명의 말씀사. (원전 2000 출판).
- Bunyan, J. (2013). *상한 심령으로 서라*(이태복 역, *An acceptable sacrifice or the excellency of a broken heart*). 서울: 지평서원. (원전 1854 출판).
- Bunyan, J. (2016). *거룩한 전쟁*(고성대 역, *The holy war*). 고양: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원전 1682 출판).
- Charnock, S. (2000). *당신의 거듭남, 확실합니까*(이태복 역, *The new birth I*). 서울: 지평서원. (원전 1996 출판).

- Charnock, S. (2012). **바로 알아야 할 거듭남의 본질**(손성은 역, *The new birth II: A discourse of the nature of regeneration*). 서울: 지평서원. (원전 1996 출판).
- Charnock, S. (2012). **하나님을 아는 지식 1**(임원주 역, *The knowledge of God*). 서울: 부흥과 개혁사. (원전 1995 출판).
- Cherry, E. T. (2001). Theology after psychology. In M. R. McMinn & T. R. Phillips (Eds.), *Care for the soul* (pp. 118–133). Downers Grove: IVP Academic.
- Coleman, J. C., Broen Jr., & William E. (1972). *Abnormal psychology and modern life, 4th Ed.* Illinois: Scott, Foresman and Company.
- Cozolino, L. (2013). **뇌기반 상담심리학의 이론과 실제**(이민희 역, *The Neuroscience of human relationships*). 서울: 시그마프레스. (원전 2006 출판).
- Davison, G. C., Neal, J. M., & Kring, A. M. (2005). **이상심리학**(이봉건 역, *Abnormal psychology, 9th Ed.*). 서울: 시그마프레스. (원전 2003 출판).
- Deckard, M. (2016). *Helpful truth in past places: The Puritan practice of Biblical counseling*. Glasgow: Christian Focus.
- Duffin, J. (2006). **의학의 역사**(신좌섭 역, *History of medicine : A scandalously short introduction*). 서울: 사이언스북스. (원전 2010 출판).
- Fifchett, G. (2002). **영적 진단을 위한 지침**(유영권 역, *Assessing spiritual needs : A guide for care givers*). 서울: 한국 장로교 출판사. (원전 1993 출판).
- Flavel, J. (1999). **마음, 참된 성도의 마음**(이태복 역, *Keeping the heart: A saint indeed*). 서울: 지평서원. (원전 1968 출판).
- Flavel, J. (2014). **존 플라벨의 마음 지키기**(김재권 역, *An honest, well experienced heart*). 서울: 생명의 말씀사. (원전 1998 출판).
- Flavel, J. (2016). **슬픔**(윤종석 역, *Facing grief : Counsel for mourners*). 서울: 복 있는 사람. (원전 2010 출판).
- Flavel, J. (2017). **섭리의 신비**(박문재 역, *The mystery of providence*). 파주: 크리스천 다이제스트. (원전 1963 출판).
- Frances, A. (2014). **정신의학적 진단의 핵심 : DSM-5의 변화와 쟁점에 대한**

- 대응(박원명, 민경준, 전덕인, 윤보현, 김문두, 우영섭 역, *Essentials of psychiatric diagnosis : Responding of the challenge of DSM-5*). 서울: 시그마프레스. (원전 2013 출판).
- Goodwin, T. (2001) *어둠 속을 걷는 빛의 자녀들*(박현덕 역, *A child of light walking in darkness*). 서울: 지평서원. (원전 1861 출판).
- Goodwin, T. (2002).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이태복 역, *Christ set forth*). 서울: 개혁된 신앙사. (원전 1861 출판).
- Goodwin, T. (2013). *믿음의 본질 1,2*(임원주 역, *The object and acts of justifying faith*). 서울: 부흥과 개혁사. (원전 1861 출판).
- Goodwin, T. (2018). *마음*(장호준 역, *The heart of Christ*). 서울: 복 있는 사람. (원전 1861 출판).
- Herding, R. (2004). *치유나무*(김예식 역, *Roots and shoots : A guide to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원전 2002 출판).
- Johnson, E. L. (2012). *기독교 심리학*(전요섭, 변영인, 김영희 역, *Foundations for soul care : a Christian psychology proposal*). 서울: CLC. (원전 2007 출판).
- Keller, T. (1988). Puritan resources for Biblical counseling. *The Journal of Pastoral Practice* 9(3), 11-44.
- Lambert, H. (2015). *성경적 상담의 핵심 개념*(김준 역, *The Biblical counseling movement after Adams*). 서울: 국제제자훈련원. (원전 2011 출판).
- Lambert, H. (2016). *A theology of Biblical counseling ; The doctrinal foundations of counseling ministry*. Grand Rapids: Zondervan.
- Lewis, P. (1979). *The genius of puritanism*. Rushden: Carey Publications.
- Lloyd-Jones, M. (1990). *청교도 신앙 그 기원과 계승자들*(서문 강 역, *The Puritans : Their rigins and successors*). 서울: 생명의 말씀사. (원전 1987 출판).
- Love, C. (2007). *낙망하는 내 영혼의 회복*(이광식 역, *The dejected soul's care*. 이광식 역). 서울: 지평서원. (원전 2001 출판).
- MacArthur, J. (2005). *Counseling: How to counsel biblically*. Nashville: Thomas Nelson.
- McGrath, A. (2004). *현대 복음주의 형성의 선구자 제임스 패커의 생애*(신재구

- 역, *J. I. Packer; A biography*). 서울: CLC. (원전 1997 출판).
- McMinn, M. R. (2011). *죄와 은혜의 기독교상담학*(전요섭, 박성은 역, *Sin and grace in Christian counseling*). 서울: CLC. (원전 2008 출판).
- McMinn, M. R., & Phillips, T. R. Eds. (2001). *Care for the soul*. Downers Grove: IVP Academic.
- Monroe, P. G. (2001). Exploring clients' personal sin in the therapeutic context. In M. R. McMinn & T. R. Phillips (Eds), *Care for the soul* (pp. 202–217). Downers Grove: IVP Academic.
- Oden, T. C. (1984). *Care of souls in the classic tradition*. Philadelphia: Fortress Press.
- Owen, J. (1999). *성령론*(이근수 역, *The Holy Spirit ; His gift and power*). 서울: 여수론. (원전 1674 출판).
- Owen, J. (2002). *참된 믿음의 특성과 능력*(이태복 역, *Evidences of the faith of God's elect and the strength of faith*). 서울: 개혁된 신앙사. (원전 1850 출판).
- Owen, J. (2005). *성령이 도우시는 기도*(박홍규 역, *The work of the Holy Spirit in prayer*). 서울: 지평서원. (원전 1996 출판).
- Owen, J. (2009). *시험*(김귀탁 역, *On temptation*). 서울: 부흥과 개혁사. (원전 1850 출판).
- Owen, J. (2009). *신자 안에 내재하는 죄*(김귀탁 역, *On indwelling sin in believers*). 서울: 부흥과 개혁사. (원전 1850 출판).
- Owen, J. (2009). *죄죽임*(김귀탁 역, *On mortification of sin*). 서울: 부흥과 개혁사. (원전 1850 출판).
- Owen, J. (2013). *영의 생각, 육의 생각*(서문 강 역, *On spiritual mindedness*). 서울: 청교도 신앙사. (원전 1850 출판).
- Owen, J. (2015). *죄와 은혜의 지배*(이한상 역, *On the dominion of sin and grace*). 서울: 부흥과 개혁사. (원전 1850 출판).
- Owen, J. (2016). *교제*(김귀탁 역, *Communion with God*). 서울: 복 있는 사람. (원전 1991 출판).
- Owen, J. (2016). *쉽게 읽는 죄와 유혹*(조계광 역, *Triumph over temptation*). 서울: 생명의 말씀사. (원전 1983 출판).
- Packer, J. I. (2016). *청교도 사상*(박영호 역, *Among God's giants: Aspects of Puritan Christianity*). 서울: CLC. (원전 1990 출판).

- Perkins, W. (2016). *황금사슬: 신학의 개요*(김지훈 역, *A golden chain: The description of theology.*) 용인: 킹덤북스. (원전 1600 출판).
- Powlison, D. (2001). In M. R. McMinn & T. R. Phillips (Eds.), *Care for the soul* (pp. 23–61). Downers Grove, Illinois: IVP Academic.
- Pruyser, P. W. (2002). *진단자로서의 목사*(유희동 역, *The minister as diagnostician: Personal problems in pastoral perspective*). 서울: 기독교문사. (원전 1976 출판).
- Rees, D., & Rose, S. (2010). *새로운 뇌과학 위험성과 전망*(김재영, 박재홍 역, *The new brain sciences : Perils and prospects*). 서울: 한울. (원전 2004 출판).
- Ryken, L. (1986). *Worldly saints: The Puritans as they really are*. Grand Rapids: Zondervan.
- Sedgwick, O. (2001). *하나님의 백성들의 은밀한 죄와 거룩*(박현덕 역, *An anatomy of secret sins*). 서울: 지평서원. (원전 1999 출판).
- Shorter, E. (2009). *정신의학의 역사*(최보문 역, *A history of psychiatry: From the era of the asylum to the age of prozac*). 서울: 바다출판사. (원전 1998 출판).
- Sibbes, R. (2008). *영광스러운 부르심*(이태복 역, *The glorious feast of the gospel*). 서울: 지평서원. (원전 1671 출판).
- Sibbes, R. (2015). *꺼져가는 심지와 상한 갈대의 회복*(전용호 역, *The bruised reed and smoking flax*). 서울: 지평서원. (원전 1671 출판).
- Sibbes, R. (2018). *개혁*(윤종석 역, *Josiah's reformation*). 서울: 복 있는 사람. (원전 1671 출판).
- Tan, S. (2014). *상담과 심리치료: 기독교적 관점*(정동섭, 김영근, 김형선 역,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 A Christian perspective*). 서울: 이레서원. (원전 2011 출판).
- van der Kolk, B. (2016). *몸은 기억한다*(제효영 역, *The body keeps the score*). 서울: 을유문화사. (원전 2015 출판).
- Vincent, T. (2001). *보지 못한 그리스도를 향한 참된 성도의 사랑*(이태복 역, *The true Christian's love to the unseen Christ*). 서울: 지평서원. (원전 1994 출판).
- Vitz, P. (2010). *신이 된 심리학, 자아 숭배라는 이단을 고발한다*(장혜영 역, *Psychology as religion*). 서울: 새물결플러스. (원전 1997 출판).

Watson, T. (1997).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김기찬 역, *A divine cordial*). 서울: 생명의 말씀. (원전 1959 출판).

Watson, T. (2014). 천국을 침노하라(조계광 역, *Heaven taken by storm*). 서울: 생명의 말씀사. (원전 2007 출판).

【 Abstract 】

Research on Uses of Puritan Resources in Christian
Counseling as a Groundwork for Construction of
Biblical System in Soul-caring

Kwon, Hye Ryoung

Yullin Church Counseling Center

Christian Counseling is a way to help people who struggle with the problems in their lives based on Biblical views on human being, not just for improving functions but for ‘soul-caring’. Christian Counseling therefore needs more holistic system to be built in order to faithfully contribute to soul-caring. Recognizing the necessity for taking note of continuity in Christian history, this paper aims to identify the substances which can be derived from resources for soul-caring of Puritans who take unique position in Christian history. As a methodology, this paper identifies the necessity and significance of reconnecting soul-caring traditions through utilizing Puritan resources. Next, through researches on Puritan literature, it finds the difference to secular studies focused on abnormal psychology in the fact that it tried to approach the healing after identifying the reason centering on the three entities of God, human and Satan. After finding that Puritan soul-caring were faceted with Christ-centeredness, holism, wisdom and love, the paper, based on them, proposes Christian counseling process model, which encompasses reasoning and diagnosing structure particular to Christian counseling, recovery of Christ-centeredness, research on keeping mind, and application of caring centered in family for the recovery of healing principle. Finally, the paper claims that this study has significance as research on Puritan literature for groundwork of Biblical system construction focused on soul-caring.

Key words: Christian counseling, soul-caring, holism, puritan resources,
biblical system construction